



◊죽은 영혼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바라춤, 유언하고도 지극한 몸놀림이 환희심을 불러 일으킨다.

◊영산재의 하이라이트인 식당작법. 부처님께 올렸던 공양물을 재에 참여한 모든 대중이 나눠 먹는다. 의미를 지니고 있어 대중 화합과 불교의 자비의식을 잘 보여주는 의식이다.



“空으로 돌아가라”

인간문화재 지광스님 49재 전통 영산재

지난 18일 영산재의 본향(本鄕)인 신촌 봉원사. 바람이 봄을 실어 오듯 한결 부드러워진 가운데 경내를 장식한 오색지화(五色紙花)가 꽃보다 더 밝게 휘날린다.

200여명의 대중전 일마당에 거대한 괘불이 울렸다. 각종 반기와 재(齋)에 참가할 여러 부처님과 이를 호위하는 신중들이 그려진 그림. 죽은 자가 저승에서 쓰게 될 대형 지전(紙錢·종이돈)뭉치를 이 법회장을 호위하듯 감싸안고 있다. 오색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지화와 반이 이날따라 유난히 선명하다. 영산재 집행부인 인간문화재 정지광스님(1월29일 입적) 49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다. 인간문화재로서의 행적을 기려 지광스님의 49재 전통영산재 의식으로 봉행되는 것. 오전 10시. “넵넵넵...” 5번의 범종소리가 영산

재의 시작을 불보살님께 고했다.

첫의식은 시련(時艱). 영산법회에 참석하는 성현과 보살, 신중을 연(緣·가미의 일종)에 대위법회장으로 모시는 의식이다. 인로왕보살기를 선두로 영가행렬은 절박의 시련장소로 내려갔다. 스님들과 일반대중들이 계승을 합창한 뒤 바라춤과 나비춤을 추며 이들을 모셨다.

연이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법회장으로 맞이하는 대령(對靈), 이들 영혼이 불단으로 나아가 불법을 듣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어주는 관욕(灌

을 대중들이 다 함께 나눠 먹는다. 의미를 지니고 있어 부처님의 자비의식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원래 재(齋)의 의미도 여기에 있다.

약 40여분에 걸쳐 실시된 식당작법은 공양을 배풀고 받는 공덕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받고 수행해 도업을 성취해 고통받는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겠다는 내용이 범용 범패로 행해졌다. 이때 사찰의 사물(범종, 운판, 목어, 북)을 비롯한 각종 법구들이 동원돼 범고 바라 착복춤 등의 작법무(作法舞)가 펼쳐진다. 식당작법은 그 의식규모와 절차가 방대하고 화려해 가장 눈길을 끈다.

오후에 재개된 영산재는 태고종 종정 정보성스님의 법문으로 시작됐다. “나고 죽는 것이 다 고(苦)”는 말로 법문을 시작한 스님은 1시간여 동안 “내세에 더 많은 복을 누리기 위해 공덕을 쌓으라”는 지당한 가르침으로 대중들을 일깨웠다.

오후의식은 영산재의 주요장면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5시간에 걸쳐 계속됐다. 원래 전통 영산재는 3일동안 전개됐으나 요즘은 하루에 봉행된다. 금은전 점안(부처님의 힘으로 종이를 저승돈으로 만드는 의식)으로 시작되는 영산작법(靈山作法)은 초할량, 등계, 복향계, 삼단관공단계, 왕생계, 모란찬, 회향계 등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하고, 죽은 영혼이 극락왕생하기를 비는 소리와 삼귀, 천수바라 등 춤사위가 번갈아 등장했다. 각 계승과 춤에는 범종 등 사물은 물론 징, 바라, 휘타 등 악기들의 청량한 소리가 더해졌다.

재가 막바지로 접어들었음을 알려주는 사식(施食), 죽은 영혼에게 필요한 음식과 담뽀 그리고 법회대중들의 정성을 전달하여 극락왕생케하는 의식이다. 이때 법당이나 법회마당과는 별도로 마련되는 곳이 ‘진신재단’. 법당이나 법회에 들지 못하는 유혼(遊魂·떠도는 영혼)들이 지나가면서 쉬며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는 곳이다. 영산재의 마지막인 소대신식(燒盡儀式).

영혼에게 입힌 옷가지와 갖가지 장엄공구 등을 태우는 의식이다. 구상화된 모든 물건이 태워져 다시 공(空)의 상태로 돌아갔다.

법회대중들은 사리저기는 불길 앞에서 저절로 두손 곁에 모아 합장했다. 가시는 이의 극락왕생을 비는 가운데 어느덧 영산재는 끝났다.

해탈문 밖서 영혼맞아 속세때 깨끗이 씻고 공양 권하며 부처님 찬탄 장엄 태우며 왕생 기원

춤이 이어졌다. 관육은 법당과 마당 입구에서 펼쳐졌다. 안에서는 관육단을 차리고 세 번의 스님(삼중사:三尊師)이 앉아 결수문을 놓고 결인을 했다. 관육차는 세속의 인연을 씻게 하고, 청정한 본래의 마음을 회복시켜준다는 의미가 깃들여 있다.

다음은 영산재의 하이라이트 식당작법(食堂作法). 영산재를 마친 후 재에 참여했던 스님들이 음식을 공양받고, 그 보답으로 법공양을 베푸는 공양의례다. 식당작법은 부처님께 올렸던 공양물



◊예경과 찬불의 소리를 고평치는 취태대.

영산재란 춤과 음성공양으로 영산회상 재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靈山齋). 석가 모니불의 설법장에 모인 모든 중생이 환희심을 일으키고 법열에 흥민된 분위기를 재현한 영산회상을 상징화한 의식이다. 영산재는 신라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지며, 불교가 국교인 고려 시대에는 크게 성행했다. 조선의 억불정책속에서도 끊이지 않고 계승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영산재는 도량의 정음부터 부처님을 찬탄하는 음악, 무용 등 각종 요소가 들어간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범패(梵唄). 관소리, 가곡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성악곡의 하나로 현재 범패 기능보유자는 박승안(83세)스님과 장벽웅(87세)스님. 지난 73년 인간문화재로 지정받은 송암스님은 근대 범패의 양태산맥이던 동서 만월(東西滿月) 중 서만월스님의 계보를 이은 이월하(李月河)스님의 제자다. 김구해, 마일문스님 등 전수교육보조자들 비롯 많은 이수자와 전수생을 두고있다.

바라춤, 나비춤, 범고춤 등으로 대표되는 작법(作法) 기능보유자 이일운스님(78세). 지난

87년 ‘봉원사 영산재’로 개칭되면서 추가 지정됐다. 이운봉, 이상일스님 등이 이수자.

같이 지정받은 도량장엄 기능보유자 정지광스님은 지난 1월29일 입적했다. 이수자는 이경암, 윤해원스님.

영산재의 범패, 화상 등은 가곡, 화상곡에 큰 영향을 주었다. 또 나비춤, 바라춤 등은 민속무용인 승무와 바라춤을 탄생시켰다.

봉원사 영산재보존회(회장 대운)는 지난 68년부터 육천범용대학(현재는 범용대학으로 개칭)을 설립해 영산재 전승과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학제를 4년제로 개편한 범용대학은 현재 봉원사에 있으며 범패중심 단설대학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한편 영산재보존회는 오는 6월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발원하는 영산재 천일기도 입재에 들어간다. 매주 봉원사내 삼천불전에서 봉행될 영산재 의식은 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개방된다. 보존회는 불교 전통의식인 영산재의 홍보를 위해 영어와 일어로 된 안내책지도 펴 낼 예정이다.



◊영산재를 장식하는 지화(紙花). 오색선명한 색깔이 생화보다 더 많다.

글: 윤기석 기자 사진: 고영배 기자



국내최초 실내 선별

아늑한 휴식공간

초대형 욕장

충분한 주차공간

노천탕



일동 사이판
ILDONG SAIPAN

세속의 번뇌와 무명을 씻어내고 부처님을 만납시다!!

포천 관광단지내에 위치한 「일동사이판」은 국내 최대의 전통 재래식 황토불 한증막과 황토사우나로 최고의 시설을 자랑합니다.

자연의 도량속에 위치한 전통 재래식 황토불 한증막과 황토 사우나 일동 사이판

유 황 천

국내최고의 유황천으로 수도권 북부지역의 대표적 관광지인 산정호수 백운계곡을 잇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관광과 휴양 레저를 겸해 온가족이 함께 유황천의 신비를 즐길 수 있어 좋습니다.

시할 및 포천군 관광 안내

관 심 원 사 : 지장보살도량 (동송읍)
관 도피안사 : 비로자나불 (철분)
부처님이 계신곳
관 자 온 사 : 관음도량 (산정호수 내)

■ 포천군 관광 안내
산정호수, 백운계곡, 운악산, 청계산, 관음산, 명성산, 황방산, 국망봉, 금주산, 고석정, 개인폭포, 인보 관광지(향교)

신 도 불 이

강원 원천지방에서 생산되는 산나물, 봄채소, 싱싱한 과일등 황토장도 마련되었습니다.

■ 교통 편

- 시외버스 : 삼봉터미널,수유리시외버스터미널 일동직행버스 일동까지
- 자기운전 43번국도(포천-38교-삼동삼거리 우회전4km) 47번국도(회계천-공룡궁내리-일동-산정호수방면4km)



일동 사이판
ILDONG SAIPAN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수입리 705번지
☎(0357)536-2000, 2035



- 국내 최고의 유황천
- 국내 최대의 대형목욕장
- 봄 한증막 ● 실내 선별 시설
- 황토, 고온, 한약사우나
- 신선하고 건조 높은 노천탕
- 수중 일마당
- 초대형 욕장 및 주차시설 완비



불 한증막 황토 사우나 고온 사우나 한방 사우나